재림 직전에 일어난 일

(계20:7~10)

7. ○천 년이 차매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8.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9.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10.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재림 직전에 일어난 일>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합니다.

'재림 직전에 일어난 일'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이 재림 바로 직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고 나서 재림 직후에 일어날 일이 내일 살펴볼 11절에 백 보좌 심판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이 예수님 재림에 대한 신앙을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강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우선적인데, 정작 재림에 대한 묘사는 아예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행1:11절에 "예수님이 구름타고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라"라고 하고, 예수님 자신도 막13:26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계시록에서는 재림이 있어야 될 위치에 재림에 관한 어떤 묘사도 존재하질 않는 겁니다. 이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예수님께서 재림에 관한 묘사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24: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라고 하셨고 또, 벧후3:10절에 "주의 날에 인자가 도둑 같이 오리니"라고 하신 말씀은 아주 극단적으

로 성취하는 듯이 느낌이 듭니다. 이 세상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감쪽같이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칠팔십 평생을 살면서 굉장한 일이 있는 것 같이 생각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이라는 것이 말할 필요도 없고 묘사될 필요도 없을 만큼 순식간에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계시록 20:11절에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6장에서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에 이 세상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없어졌다고 했는데, 그 때에는 어린양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마음에서 세상이 없어졌다는 것이고, 지금은 진짜 물리적으로 이 세상과 우주가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이 없어지는 계기가 되는 재림 사건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번갯불이 번쩍이는 것처럼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인자의 임하심도 순간적으로 임하는 상황을 극단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묘사를 없앤 것 아니냐는 느낌이 들고, 또 하나는 구름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실 때의 구름이라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땅과 하늘을 구분해주는 경계로서의 상징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천국에서 임하신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계시록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미 천국과 공중과 땅의 경계가 무의미한 상태에서 성령님 안에서 요한이 계시를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땅과 하늘의 경계가 되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림에 대한 묘사가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재림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이 무엇이냐 하면, 다름 아닌 우리가 10절에 읽은 대로 마귀 사탄이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면서 사탄의 존재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야말로 직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겁니다.

내일은 재림 직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오늘은 재림 직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7절에 "천 년이 차매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천년이 차매'라는 것은 천년 왕국을 말하죠.

그런데 천년이 찼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앞서서 우리가 천년왕국을 이해할 때에 개인적 차원의 천년왕국으로서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개개인이 인격적이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탄과의 관계도 그렇고 개인적인 차원을 도외시하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에게서 완전히 사탄이 무력화되는 그러한 시기가 있다는 것은,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왕 노릇 한다는 것인데, 창세기 1장 28절에서의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하신 말씀이고, 그 왕 노릇은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는 왕 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판단을 통한 왕 노릇이고 그게 천년왕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천년이 찬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마지막 태어나서 마지막 시대에 사는 마지막 세대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마지막 천년왕국인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예정가운데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서 살던 천년왕국이 차매, 즉 그들을 통해 이루시려고 하시는 모든 소원과 계획이 다 이루어진 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동안은 전혀 사탄이 힘을 발휘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사람들을 통해 이루시려는 소원과 계획을 다 이루신 뒤에 사탄을 풀어놓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때에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본문에 보니까 재밌어요.
8절에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방에 흩어져 있는 믿지 않는 백성을 모았다고 합니다.
엡2:2절에 보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천년왕국이 일어났던 것처럼 개인적으로 사탄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나한테는 완전히 무저갱에 빠진 것과 같은 의미로 무력화된 사탄이었지만,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서 싸움을 붙인다는 것인데 모래 같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말을 또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일곱 인으로 부터 시작해서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재앙을 거치는 동안에 도대체 살아남은 사람이 누가 있다고 사방에서 모래알 같이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바다가 피로 변하고, 강물이 피로 변하고, 땅 1/3이 일곱 인에서 타버렸고, 나머지는 일곱 대접에서 다 망해버렸는데 어디에서 사람이 살아남아서 모래알 같이 많은 사람을 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상징 속에서의 묘사를 가만히 봐도 ‘싸움을 붙이리니’라고 나오지만 싸움을 붙이기 위해서 모

래알 같이 많은 사람들을 사방에서 모았지만 실제로 격렬하게 싸움은 없었다는 겁니다.
9절에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포위까지 했어요. 그렇지만 포위당한 성도의 진, 사랑하시는 성안에 있는 성도들이 마치 행주산성에서 행주대첩을 이룬 것처럼, 그 성 바깥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격렬하게 전쟁을 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싸움은 싱겁게 끝나버립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들이 다 망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과 성도의 진을 둘러싸고 있던 자들이 멸망당해버려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끝난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겠습니까?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16장에서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에,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에 짐승이 사방에서 왕들을 모았다고 했잖아요. 그 전쟁과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동일한 것이 아니죠.
아마겟돈 전쟁과 이것은 의미는 통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여섯 번째 대접까지 쏟고 나니까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완전히 내놓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들이 구분이 가는 겁니다.
이 두 부류는 섞일 수도 없고 그 정체성이 서로 혼동이 될 수 없는 두 부류로 쫙 갈라져버린 겁니다. 이 갈라진 두 부류는 영적인 원수가 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원수는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영적인 원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섞일 수도 없고, 화합할 수도 없고, 단합할 수도 없는 전혀 다른 운명의 두 부류가 됐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오늘 본문도 의미는 같은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정리해 내시는데 아마겟돈 전쟁과 이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의 두 부류를 구분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같은 사람들일 텐데 기준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여자와 남자로 구분했다가 그 다음에 여탕에 들어가는 사람과 남탕에 들어가는 사람을 구분하고, 생리적이고 생김새를 따라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 놓고 목욕할 때 어디를 가느냐를 따라 구분하는 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구분이 달라집니까?
아마겟돈 전쟁 때에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땅을 사랑하는 자에 더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과 예수님의 힘까지 다해서 땅을 사랑하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묶어서 구분을 해내신 겁니다.

그러면 이번은 그렇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특색이 뭡니까?
하늘에서 기쁨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에 마3: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기쁨으로 귀결되는 사랑을 하나님을 향해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땅에서는 소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다 얻어지기 때문이고 이 땅에서의 사는 모습이 천년왕국이었어요.
천년왕국이 왜 천년왕국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니까.
그럼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않고 자기가 마음에서 생각나는 소원과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구분해 내는 겁니다.
첫 번째 구분은 기쁨으로 귀결되는 사랑을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내놓은 자들을 알 수 있었고, 두 번째 기준은 이 땅에서 행동하고 활동하고 살아가는 모습은 겉으로 볼 때에는 똑같은데 그 활동과 행동과 말의 이유와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를 가지고 구분해내는 겁니다. 다른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천년왕국을 산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분해 내는 것인데, 그건 저절로 구분되는 것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사탄의 역할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모으는 겁니다. 한데 모아요.
모았는데, 성도의 진과 모인 자들의 싸움이 붙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마치 이건 뭐 같습니까?
비행기로 공습할 것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습을 여러 번에 나눠서 그 원수의 나라를 물리치려고 한 것인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한 곳으로 다 모입시다.’라고 해서 한 곳으로 모이니까 공습을 한 방만 때리면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사탄이 무저갱에서 풀려나서 하는 역할은 뭐냐?
‘멸망할 사람들 모여라!’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흰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하실 것인데, 그 심판 때에 멸망할 자들이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에서 나와 동행할 자들 여기 모이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서 확연한 구분을 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아놓고 그 다음에 ‘불이 내려와서 태워버린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이 임하시면 이미 이들은 다 지옥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이들에 대한 멸망을 쏟아 부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모아 놓은 다음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앞서 두 짐승이 들어간 불 못으로 딸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가 참 장엄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10절에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라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이 ‘세세토록 밤낮 쉬지 않고 괴로움을 받는다’는 것이 666 짐승의 기본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 666 짐승이 바다짐승을 섬기도록 미혹하고 거짓말을 했고 사탄의 하수인이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마지막으로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은 없어지니까 없어지기 전까지 인간의 역사와 함께 했습니다.
사람들끼리 하는 이야기 같으면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었다고 해야 할 판이에요.
그렇게 사탄이 처음부터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인류역사와 함께 했어요.
여기에 뭔가 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멸망시키면 되는 것을 왜 창조 시에 사탄이 존재해야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뒤에도 사탄은 계속 역사하면서, 개별적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를 가진 자들에 대해서만 무력한 상태가 되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정혼 기간에서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결혼할 수 있는 신부가 되기까지, 여전히 사탄이 계속 역사하도록 허락을 하시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사탄의 역할을 허락하셨는가?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일곱 교회 모두에게 빠지지 않고 들어간 단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기는 자.
이 이김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피조 된 존재 아닙니까?
피조 된 존재인데 무조건 하나님을 로봇처럼 사랑하도록 명령어가 입력되어서 그것을 따라간다면 거기에는 인격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명령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그대로 다 노출시키셨다면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네 짐승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것은 기가 막히게 좋으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또 기가 막히게 새롭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쉬지 않고는 안식 자체 안으로 들어가서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식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만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쉬지 않음은 두 짐승과 사탄이 들어간 지옥과는 다르게, 쉬지 않고 고통을 당하는 것과는 다르게, 쉬지 않고 새롭게 새롭게 하나님의 좋으심과 하나님의 멋지심과 하나님의 아

름다우심에 쉼 없이 끊임없이 무한히 반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대로 당신을 노출시켜버렸다고 한다면 믿음이고 뭐고 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마귀의 역사를 이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인격자로서 가질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이김조차도 내가 싸워서 이깁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겨 놓으셨어요. 주님께서 이루신 승리를 적용만 하라는데 적용을 안 해요.
그래서 인류가 어디를 향해 갑니까?
사탄과 짐승들이 만들어 놓은 바벨론을 향해서 인류의 역사가 진행이 되어 왔고, 진행되고 있고, 진행될 것입니다.
바벨론이 뭡니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서의 형통과 이 땅에서의 번영, 내일은 더 나아지겠지, 모레는 더 나아지겠지…
지금 이 자리에서 위를 바라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온전한 행복을 이룰 생각을 하지 않고 이 땅에서 이루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탄이 이 땅으로 끌어내리려는 힘에 대해서 이기는 자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자들이 아니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사탄의 활동을 이긴다는 것에 의미가 있어서.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5감관을 통해서 보이는 좋은 것들, 들리는 좋은 것들, 만져지는 좋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겠다고 결단하고, 그러한 인격체가 되는 것이 바로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어코 천년왕국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에서 육체를 통해 이루고 싶은 소원을 통해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의 진, 사랑하는 성으로 표현된 것이죠.
천년 왕국을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 성도의 진이고, 예루살렘 성이고 참 교회입니다.
조직으로서의 교회 안에는 666표를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직으로서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성도들로 하여금 이 땅에 마음이 꽂히도록 인도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총회장님도 계시고, 원로 목사님들도 계시고, 성도들도 있고, 신부님도 계시고, 수녀님도 계시고…
666 표를 받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도의 진, 예루살렘 성을 염두에 둔 아름다운 성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똑같은 의미를 두 번 반복함으로서 진리성(眞理性)을 강조하는 것이죠.
‘성도의 진’이라는 것은 민수기 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기 위해서 진영을 짤 때에 회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갈라져서 진영을 짰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성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회막과 성전은 같은 의미죠. 그 안에 법궤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만나려면 번제단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회막에도 번제단이 있고, 성전에도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회막에 임재하시고 번제단이 있는데, 사방에서 열두지파가 셋씩 나눠서 진영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막에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날마다 아침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립니다. 그 상번제 장소에서 하나님이 출29:42절에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전도 마찬가지죠. 번제단에서 죄 된 내가 죽을 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전 중심의 생활, 회막 중심의 생활이 뭘 말하는 겁니까?
내용적으로 상번제 중심의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의 생활화를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자들의 진영, 그들만이 정혼한 기간에서 혼인한 사람들로 변하는 신부의 모습을 갖춘다는 거예요.

왜 이런 기간이 필요합니까?
바벨론을 향하려는 이 땅에서의 번영과 성공과 형통을 향하려는 마음이 우리 속에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더 나은 내일을 향해 가려는 마음이.
지금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과 기쁨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체질, 이 체질이 없어지는 것이 기계적이나 마술적으로 순간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체이기 때문에 체질이 된 인격성이 변하는데 정혼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 정혼 기간에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를 붙잡고 세상에 대해 죽으면서, 마음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보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하면 어느 시점에 결혼할 수 있도록 깨끗한 세마포 옷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러지 못한 자들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사탄에 이끌림을 받아서 한 군데 모임으로써 멸망할 자들로의 정체성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들로의 정체성이 뚜렷이 구분되는 두 부류가 생겨난다는 것이죠.
천년왕국을 살면서 이 땅에서 사명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의 구분이 나타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드디어 사탄이 멸망하는 예수님 재림 직전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하나님!
우리 주님을 어서 이 땅에 보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오래 살며 우리가 이 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성공이라고 해봐야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누릴 복에 비하면 티끌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어서 어서 주님 오실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